

MERITZ 메리츠화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후원 협약



메리츠화재는 어린이들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1월 13일 원 명수 부회장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진념 회장(전 경제부총리)

이 참석한 가운데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후원 협약식을 갖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부터 경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도시 복지 어린이 금융체험현장학습'과 '어린이 경제·금융교육캠프'에 사용될 예정이다.

A.M. Best A-(Excellent) 등급 2년 연속 획득 Moody's A3 등급 3년 연속 유지



메리츠화재는 세계적인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A.M. Best로부터 재무건전성 등급 A-(Excellent)을 2년 연속 획득했다. 또한 채무이행등급 (ICR)도 A-를 유지

했다. 지난 2006년 국내 보험사 최초로 Moody's로부터 재무건전성 등급 A3를 획득한 데 이어, 3년 연속 A3 등급을 유지하는 등 메리츠화재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로부터 잇달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특히 이번 평가에서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손해를 개선으로 향상된 언더라이팅성과와 시장 내 안정적인 위치 및 투자성과를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손해보험

2009년 시무식 행사 실시



한화손해보험은 1월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본사 9층 대강당에서 권처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200여 명의 임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처신 대표이사는 "내실트른"을 올해의 경영슬로건으로 선포하고 본업의 핵심경쟁력을 키워 미래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임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새해인사를 건넸다.

한화손해보험 아름회, 애란원에 성금 전달



한화손해보험 여직원 모임인 아름회(회장 차희정)는 12월 30일 불우이웃 돕기 성금 500만 원을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

한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에 전액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지난 11월 20일 일일호프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이다. 이 날 행사에는 김영창 상무와 아름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애란원 한상순 원장께 직접 성금을 전달하였다.

애란원은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생활시설로서,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숙식보호, 상담, 교육 등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롯데손해보험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롯데손해보험은 1월 7일, 강원도 화천군 신대리에서 정갑철 화천군수를 포함한 지역단체 관계자 및 마을 주민 20여 명과 롯데손해보험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손해보험과 토고미 마을 간의 '1사 1촌 자매결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식은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는 틀 형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롯데손해보험은 토고미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구입 및 농번기활동 지원, 임직원 가족의 자연체험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 김창재 대표는 “금번 자매결연을 통해 토고미 마을과 롯데손해보험이 상생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1사 1촌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원 한마음 화합 과정 교육 실시



롯데손해보험은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 오산시 소재 롯데인재개발원에서 1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전직원 한마음 화합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롯데손보인으로서의 비전 공유 및 열정의 조직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김창재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16차에 걸쳐 실시되는 것으로, 롯데 그룹 소개 및 개인별 목표 지수 진단, 비전 게임 등의 1박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금번 과정의 1차 교육에 참가한 김창재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4월 롯데손해보험 출범 후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이제는 롯데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거듭나 상위사 도약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필요할 때” 라고 강조하였다.

그린손해보험

그린손보, 창립 62주년 맞아



그린손해보험은 지난 2월 2일, 1947년 국제손해재보험 주식회사로 보험시장에 진출한 이래 올해로 62주년을 맞았다. 그린손보는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강남 신사옥 대강당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영두 회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손해보험사로서 지난 62년간 한국경제와 고락을 함께 하며 역경을 이겨내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며 열과 성을 다해준 모든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62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25년 장기근속자 3명과 20년 장기근속자 20명, 10년 장기근속자 8명 등 총 3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3/4분기 자동차보상 전략회의 개최



보상지원부는 지난 1월 21일, 수도권 육성부 교육장에서 'FY2008 3/4분기 자동차보상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FY2008 3/4분기 업무실적 분석과 4/4분기 중점추진 전략 공유 및 보상센터 업무 현황 보고 등 정보를 공유하고 토의하는 자리였다. 또한 각 센터장들의 업무보고는 물론 간담회를 열어 임직원간 자유로운 의사전달을 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연 부회장은 현재 금융 상황은 물론 향후 보상과 회사 전체의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해 강연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유다이렉트 자동차보험, 3년 만에 3,080% 성장



흥국쌍용화재 이유다이렉트가 지난해 12월 영업실적 159억 원을 달성, 전년 대비 118.5% 늘어난 것은 물론 2005년 12월을 기

준으로 3년 만에 30배 이상 성장하는 등 업계에서 최단기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7월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시장에 첫 진출한 이유다이렉트의 영업실적은 2005년 12월 기준 불과 5억 원(MS 0.8%)에서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9억 원(MS 2.6%)과 73억 원(MS 4.1%)을 거두었고, 지난해 12월에는 159억 원(MS 8.9%)을 돌파했다.

이유다이렉트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간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기존 자동차보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실시한 휴대문 문자 상담서비스와 20분 초과 출동시 20만원 상당의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20분 긴급출동서비스 보증제' 등의 차별화된 보상서비스로 상품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무배당 다사랑 자녀보험



흥국쌍용화재가 자녀를 위한 보장내용을 알차게 담은 '다사랑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최장 30세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자녀의 실질적인 재정 독립 기간까지의 보장이 가능하며, 15년, 20년 등 만기기간에 따라 다양한 플랜설정이 가능해 자녀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자유롭게 보장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형제 또는 자매가 출생하거나, 이들이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에 각 2.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1 제일화재

점포영업, 재무컨설팅 강화



제일화재는 2009년 점포영업 목표를 '재무컨설팅'에 두고 조직의 영업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췄다. 교차판매와

자통법 시대에 발맞춰 회사는 FP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가족들이 손해보 상품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FP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제일화재는 손보업계에서 최초로 영업가족 활동을 지원할 재무설계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재무설계 양성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범죄' 예방에 만전



제일화재는 경제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형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범죄의 유형 및 대응방안' 매뉴얼을 구축하

고, 각 센터별 보상직원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제일화재 보상업무 시스템은 보험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유형을 시스템에 반영, 사고 접수 시 등록된 사고내용과 계약사항을 분석한 후 보험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고건에 경고표시를 직원들에게 공지해 보험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AMSUNG 삼성화재

7년 연속 A.M.Best社 신용등급 『A+』 획득



삼성화재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 A.M.Best로부터 국내 보험사 가운데 최고 신용등급인 『A+(Superior)』를

2002년부터 7년 연속 획득했다.

『A+』 신용등급은 A.M.Best가 부여하고 있는 신용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A++』 등급과 함께 최상위(Superior) 등급에 속한다.

이번에 A.M.Best가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삼성화재의 자본력과 수익증시 전략, 리스크관리 능력 등이며, 삼성화재는 재무건정성, 수익성, 안정성, 보험금지급능력 면에서 탁월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新고객서비스헌장』 선포 및

『소중한 고객돈 찾아 주기 캠페인』 실시



삼성화재는 12일 서울 을지로 본사 3층 국제회의실에서 『新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 행사를 갖고, 2009년 한 해를 “고객업무

품질혁신의 元年”으로 삼는다는 결의를 다졌다. 『新고객서비스헌장』은 모든 경영활동의 출발점을 「고객신뢰」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원칙 아래, 신뢰(Confidence)·신속(Celerity)·정확(Correctness) 등 3C를 기초로 만들어 졌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고객이 잊어버리고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장기보험 휴면보험금을 찾아 주는 『소중한 고객돈 찾아 주기 캠페인』을 전사 차원에서 전개, 휴면계약에 대한 개별안내 및 안내장을 발송하고, 특히 고객이 간소한 수령절차를 통해 쉽게 휴면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H 현대해상

현대해상, '사랑의 연탄 나르기'



현대해상의 'Hi-Life 봉사단'은 지난 12월 24일과 29일 두 차수에 걸쳐 인천시 남구 송의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자 시행된 이번 행사는 '인천연탄은행'과 함께 연탄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영세가정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철영, 서태창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8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을 오가며 지계를 지거나 손으로 연탄을 운반해 총 20여 가구에 8,000장의 연탄을 기증했다.

2008 선진교통안전대상 단체상 수상



현대해상이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는 '2008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단체상을 수상했다.

지난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상식에서 현대해상은 자동차보상의 지속적인 손해를 1위,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서비스를 위한 노력과 선진교통문화 정책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단체상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회사를 대표해 이영문 부사장이 상장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LIG 손해보험

대한적십자사에 공익기금 8천여 만원 기부



LIG손해보험 구자준 회장이 공익기금 기부를 통해 2009년도 '희망나눔'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4일, 남산동에 위

치한 대한적십자사 유증하 총재를 찾아 공익기금 8천여만 원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한 것.

'LIG희망교과목기금'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공익기금은 LIG손해보험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출시한 어린이보험 상품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적립해 조성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전해져 취약 아동 계층 지원과 재난 구조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구 회장은 2004년 베를린마라톤 대회부터 자신이 직접 대회에 참가해 달린 거리 1m 당 100원씩을 적립해 'LIG희망마라톤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고객과 함께하는 '창사 50주년 기념식' 개최



LIG손해보험은 5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LIG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임직원과 영업가족, 고객 등 2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창사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59년 범한해상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이래 지난 달 27일로 창사 50주년을 맞은 LIG손해보험은 고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임직원 및 영업가족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초청된 고객 30여명은 LIG손해보험에 적어도 20년 이상 인연을 맺어온 장기 우수고객들로, 구자준 회장이 직접 감사패와 소정의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오랜 기간 회사를 아끼고 사랑해준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동부화재

A.M.Best 신용평가 'A'로 등급 상향



동부화재가 세계적인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A.M.Best로부터 뛰어난 보험영업과 안정적인 자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획득했다.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등급이 상향된 것은 동부화재의 적절한 자본수준과 뛰어난 보험영업 실적, 안정적인 시장위치, 적절한 투자영업 실적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M.Best는 '동부화재가 지난 5년간의 강력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자본력이 개선되었으며, 최고경영진의 이익중심 경영전략과 낮은 사업비 구조로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해 2,712억 원의 당기순이익 실현, 신체의일 안정적 성장 등이 등급 상향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지하노래방 화재, 단체상해보험금 7억 원 지급



동부화재는 부산 영도구 남항동 지하 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사망자 1인당 1억 원씩 총 7억

원의 보험금을 전달했다.

사망한 직원들이 근무하던 조선소는 지난 2008년 4월에 업무 중 화재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당했을 경우 1인당 1억 원의 보험 가입금액으로 '브라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계약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했다.